

'불교권리 제도화' 의지 표출

지난달 29일 조계종 총무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한 요구사항은 1980년 이후 불교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맺어진 갈등에 책임을 지는 선진공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조계종은 더 이상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소모적인 마찰을 중단하고 불교계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장치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원관리공단의 상급기관인 내무부와 합의에 앞선 입장발표로 풀이된다.

조계종 '국립공원 신도증 출입' 요구서 제출배경

총무원의 요구사항 가운데 주목을 끄는 부분은 국립공원내에 있는 사찰에 대한 공원사업수입의 분배와 사용자 지급 요구이다. 이는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사찰과 사찰이 보존한 환경을 바탕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찰의 토지와 시설을 이용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공원에서의 사찰토지구상비율, 사찰토지에 위치한 공원시설의 토지 사용료를 합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일 공문내에 위치한 사찰과 협의없이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8백원에서 1천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같은 입장료는 해마다 불가상승을 한도액인 10%씩 인상했으나 급년에 25%가 기습 인상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통틀어 오던 문화재관리요가 오는 7월1일부터 자율화됨에 따라 공원관리공단이 선수를 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찰참배 불자에 입장료' 어불성설 주장 공원수익중 사찰토지 사용료 환수 당연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리료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총무원은 더 나아가 그동안 국립공원 지정된 공원 입장객의 무단이용으로 손실을 입고있는 사찰에 대해 현재까지의 무단사용료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무원은 만일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원에 토지를 제공하지 않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료의 10%를 문화재보수비로 지출하고있는 반면 가야산국립공원은 국보 2점 보물 4점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인사에 30%를 지출하고 있다. 또한 국보 1점 보물 3점이 있는 쌍계사나 국보 5점 보물 4점의 소백산 부석사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확산되는 '성직자양성전문대학원' 파문

대통령자문기구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달 9일 제2차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교계의 백지화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자문기구 교육개혁위원회가 결성기로 하고 범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결성되는 불교대학원은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정부 각 기관에 제출했으며 부산 불교교도자들이 주요 정부인사에게 항의 뜻을 전하는 등 주시하고 있다.

'백지화' 여론... 법적 대응 움직임도

대통령자문기구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달 9일 제2차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교계의 백지화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려는 신학대학에 대해 재정적 지원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종교계와 교계의 백지화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계는 정부차원의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의 설립제도 자체가 철회되어야 하며 각 종교의 성직자양성은 각 교단에서 종교특성에 맞는 성직자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특정종교인 개신교계에 난립하는 무자격 목사들의 수준향상과 제도적인 양성을 위해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교계 16개단체 항의성명서 정부에 제출 교육부 3월경 시행령 발표... 내년 실시

성 전문대학원의 제도에 대한 발상단계부터 방인이 공표되기까지의 사안을 분석하고 나타날 결과를 파악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현제 교계는 불교인권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동국대 석림동문회,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함께 16개 단체가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정부 각 기관에 제출했으며 부산 불교교도자들이 주요 정부인사에게 항의 뜻을 전하는 등 주시하고 있다.

성명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전면 설정 결정에 대하여
각 종단 사무처장과 2천만 불교도를 대표한 본 종단협의회는 지난 2월 20일 일본각료에서 독도를 사실상 포함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결정하고, 카지야마 관방장관이 독도에 대한 일관된 입장 표명과 함께 200해리 안에 있는 어떠한 수역도 제외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종래 입장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밝힌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제법 상으로 역사적으로 온당치 못한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조계종은 지난달 29일 국립공원내 위치한 사찰에 대한 공원수입의 분배와 사용자 지급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요구했다. 사진은 국립공원내 위치한 월정사 전경.

총무원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포교원에서 발급하는 신도증이다. 포교원은 이미 신도증 발급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발급작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불교계가 공원관리공단에 손해를 보고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총무원이 자료를 수집해 논리 및 법리상으로 대응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원 입장료와 사찰토지 사용료

1967년 공원법 개정에 따른 국립공원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원내 토지와 임야 등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공원내 사찰에서 전담해 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고 공원내의 사찰 토지가 공원구역으

성명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전면 설정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독도 문제를 정치적 이해 관계의 저택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속셈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한국인들의 일본 상품 불매와 명인 규탄 등 높아지는 반일 감정의 파고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외교상으로는 내정상으로 일본의 후퇴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일본 언론들 또한 이번 사태의 본질이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경제 수역 선포를 둘러싼 어업권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은 영토 문제에 대한 본질을 은폐하고 희석시키려는 일본 정·관·언론계의 기만책일 뿐이다.

시론 삶의 질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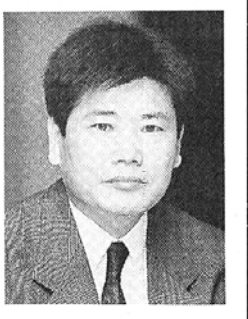
머칠 전, 낮의 일이다. 거리는 봄의 순길 같은 가랑비가 내리면서 촉촉히 젖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남쪽 생방송에서 소곤대는 빗소리를 들어본 적이 벌써 20년도 더 지난 것 같았다. 방학이 되면 배낭속에 수건 하나, 치약 지출 하나만 달랑 넣고 바람처럼 생방송로 달려가며 물론 했던 게 대학시절의 젊음이었던 것이다. 앞으로 봄 햇살이 더 재이던 남쪽 산자락의 동백나무 꽃망울들도 인제히 주사(朱砂)같은 붉은 빛깔을 독처럼 흘리고 말겠지.

이, 텔레비전 보고 신문 몇몇 정도 읽은 지식인이라면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예컨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요. 경제개발의 혜택도 누렸지만 그 반대로 지금 공해문제 등으로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소? 이제부터라도 삶의 질을 생각해 서 종교나 정신, 문화 등에 관심을 돌려야 될 때지요'라는 식으로는 결코 대답할 리가 없을 것이다. 스님 역시 선승으로서 근원적인 깊은 지혜를 보여주려 할 뿐이지 현실의 시비를 가리는 데는 자신이 몹이 아니라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분별심에 빠진 현대인

영축산의 나한(羅漢)처럼 보이기도 하는 명정스님이 머무는 극락암으로 전화를 건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깨어난 후였다. 최근 저자거리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세속의 분별심에 빠진 현대인... 그러나 스님은 출타중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10여분 간격으로 두어 차례 더 걸어도 보았지만 역시 무응답은 마찬가지였다. 많은 스님 중에 왜 하필이면 '세 번 웃게 하는 굴' 즉 삼소굴(三笑窟)을 지키고 있는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는 지 그 이유는 불분명했다.

그렇다고 모른 채 넘어가기에는 그것도 찰찔한 일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허공에 고개를 쳐들고서 언제나 믿음직한 백이 되어주는 부처님에게 물기로 하였다. '무엇이 삶의 질이냐고요? 부처님, 그거야 행복을 위한 삶의 조건같은 거 아닙니까? 현대 이상한 나라. 삶의 필요충분 조건은 양(量)에도 있고 질(質)에도 있고요. 앞으로는 질만 높이겠다고 하니 그 구호가 좀 어색하기도 하구요. 질을 의미하면 양만 추구한 지난 과거는 불행하게 살아왔다는 말이 되는 셈이니까요. 아, 부처님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양과 질을 따르므로 생각, 분별심에 빠진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이군요.'



정찬주 (소설가)

스스로 얻어지는 행복

그대로 모은 여전히 남는다. '부처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도 가만히 들여다보니 수상쩍기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냐?' 불교는 자각의 종교이다. 불교적 삶의 시발점은 크게 보아 정각(正覺)이고 작게 보아 자각(自覺)이 아니겠는가. 불교인의 삶이란 자각에 의해서 스스로 그 질이 높여져야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놓여짐을 당해서는 그거야말로 흉내내는 삶에 불과하다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침묵 속에서도 화두 같은 깊은 미소를 던지고 계십니다. 연꽃 같은 당신의 미소가 있기에 그나마 어수선하고 살벌한 세상은 균형감을 잃지 않고 있지요. 결코 공해 같은 말장난에 현혹당하지 말 일입니다.'

스스로 얻어지는 행복

그대로 모은 여전히 남는다. '부처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도 가만히 들여다보니 수상쩍기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냐?' 불교는 자각의 종교이다. 불교적 삶의 시발점은 크게 보아 정각(正覺)이고 작게 보아 자각(自覺)이 아니겠는가. 불교인의 삶이란 자각에 의해서 스스로 그 질이 높여져야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놓여짐을 당해서는 그거야말로 흉내내는 삶에 불과하다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침묵 속에서도 화두 같은 깊은 미소를 던지고 계십니다. 연꽃 같은 당신의 미소가 있기에 그나마 어수선하고 살벌한 세상은 균형감을 잃지 않고 있지요. 결코 공해 같은 말장난에 현혹당하지 말 일입니다.'